

12월 2일 열린 '백만원력 결집불사 발우저금통 여는 날' 행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이 저금통의 동전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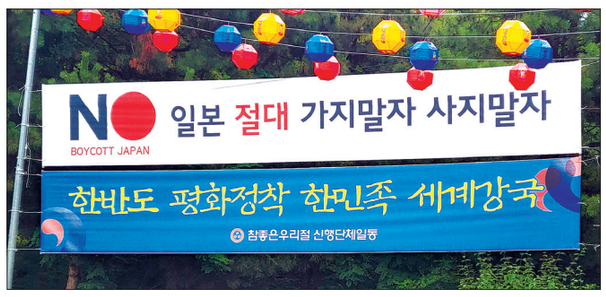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9명의 스님들이 11월 11일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에서 방부를 들이고 동안거 정진에 들어갔다.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석탑 보수 후 모습. 20년에 걸쳐 해체 · 복원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3월 1일 조계사에서 개최한 기념법회서 스님들이 백초월 스님의 진관사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대표단이 파키스탄 라호르박물관 고타마 싯다르타 고행상 앞에서 예불을 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로 나온 '노 재팬(No Japan)' 운동에 전국 불교계의 동참도 이어졌다.

한국불교 중흥 불사 · 결사 시작되다

현대불교 선정 2019년 10대 뉴스

2019년 한국불교도 다사다난했다. 사회적으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업이 전개됐으며, 백만원력 결집 불사와 위례천막결사 등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사업들이 시작됐다. 한 해동안 한국불교 주요 이슈 10개를 선정 · 정리했다.

신성민 · 노덕현 · 윤호섭 기자

하나로 모인 보살들의 원력

2019년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조계종 백만원력 결집불사다.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4월 17일 서울 조계사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단순히 수행과 보시를 넘어 불교의 미래를 사부대중의 손으로 직접 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불 · 법 · 승을 주제로 △경주 열암곡 마애불 입불 △부처님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사찰 건립 △육해공 3군본부 계룡대 영외법당 건립 △불교복지 확대를 위한 불교요양병원 건립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교구본사에서 대대적인 모연운동이 전개됐으며, 37년 도반인 설매 · 연취 보살이 부다가야 사찰 건립기금 50억 원을 희사하기로 해 화제가 됐다. 조계종은 이 같은 원력을 모아 내년 부다가야 사찰 '분황사'의 첫 삽을 뜰 계획이다.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 용맹정진

지난 11월 11일 위례신도시 포교당 건립 부지에서 한국불교사에 유례가 없을 새로운 결사가 시작됐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성곡 · 호산 · 무연 · 심우 · 진각 · 도림 · 인산 스님은 상월선원이라고 명명된 비닐하우스 선원에서 동안거 정진에 들어갔다.

9명의 스님들은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 △하루 한 끼 공양 △옷 한 벌만 허용 △삭발 · 목욕 금지 등의 청규를 정하고 이를 어길 시 조계종 승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와 제적원까지 제출하고 무문관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달여 가 지난 현재 상월선원은 9명 스님들의 용맹정진 수행처이자 외호 대중들의 야단법석 기도 · 수행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1운동의 독립정신, 불교계서 재현

올 한해는 민족 독립을 위한 3.1운동의 정신이 불교계에서도 다시 펼쳐진 한해였다. 먼저 3월 1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서울 조계사에서 기념법회를 열고 100주년 선언문을 발표했다. 불교계는 3.1정신과 독립선언문이 민중을 감싼 미륵보살의 하생(下生)과 같다고 상찬하며, △사회 분열 및 갈등 행위 배격 △중도와 화쟁 사상으로 화합 △무력과 폭력행위 비용납 △적극적인 남북교류 지지, 평화정착 실천 등을 다짐했다.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을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익산 미륵사지석탑 복원 완료

20년 동안의 해체 보수 끝에 새로 복원된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지난 4월 30일 대중에게 공개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1년부터 석탑의 본격적인 해체조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학술조사연구와 구조보강, 보존처리 등을 시행해 2017년 말 6층까지 석탑의 조립을 완료했다.

미륵사지 석탑은 최장기간 동안 체계적인 연구와 수리가 진행됐으며, 추정에 의한 복원이 아닌, 원래의 부재를 81%까지 최대한 재사용해 석탑의 진정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하지만 감사원의 문제 제기로 다시 '원형 복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총림 해제된 고불총림 백양사

고불총림 백양사가 조계종 중앙종회 결의로 11월 6일 총림의 지위를 잃었다. 前종정 서옹 스님 생존 시에만 총림을 운영하겠다고 조건부 신청한 점 △총림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오랫동안 지속된 점 등이 발목을 잡았다. 게다가 주지 토진 스님과 대중의 소통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서 주지의 용퇴를 촉구하는 내부 목소리도 나왔다. 주지 토진 스님은 총림 해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백양사 대중은 이번 일을 계기로 문제를 해결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파키스탄 고행상 한국전시 가능성

조계종이 파키스탄 정부 초청을 받아 11월 파키스탄 내 불교 유적을 순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중진스님들은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정부에 라호르박물관이 소장한 싯다르타 고행상의 한국전시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파키스탄 행정수반인 임란 칸 총리를 비롯해 라호르를 관장하는 초드리 모하마드 사르와 펀자브주 주지사는 "고행상뿐만 아니라 어떤 불교유물도 가능하다"고 화답해 머지않아 고행상의 한국전시가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싯다르타 고행상은 일본에서 전시된 적이 있으나 한국전시는 한 차례도 없었다.

韓日갈등에 불교계도 'No Japan'

연 초부터 이어진 한일갈등은 8.15광복절을 앞두고 반일운동으로 점화됐다. 대한불교청년회를 비롯한 불자 청년들과 지역사찰을 중심으로 불교계에서는 반일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만해 스님의 정신을 잇는 대한불교청년회는 광복절을 앞둔 8월 13일 청년단체들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반일 플래카드를 전법회관 등에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에 나섰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또한 일본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일선 불자대학생들의 반일운동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신심 뜨겁게 결집한 '佛都 부산'

2019년은 부산 불심이 하나로 결집된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올 한해 동안 만명 이상이 운집한 불교계 행사는 대부분이 부산에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도 부산의 불심은 뜨거웠다. 올해 3월 출가열반재일 대규모 승보공양으로 시작된 부산 불심의 결집은 조계종 부산연합회의 7월 6일 합동수계법회에 이어 10월 20일 시민과 함께하는 불교문화대축제로 이어졌다. 합동수계법회서는 2000명의 불자들이 운집해 지계의 삶을 서원했다.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불교문화대축제는 10만명의 불자들이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을 위해 모여 장안의 화제가 됐다.

지성불교 산실 〈불교평론〉 20돌

불교 유일 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이 올해로 창간 20주년을 맞았다. 1999년 '20세기 한국 불교의 회고와 반성'을 주제로 창간호를 낸 후 〈불교평론〉은 '기복(祈福) 불교' '대승불교 정체성' 등 불교계 민감한 부분을 과감히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다.

특히 〈불교평론〉은 그동안 기존 불교학계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시대 조류와의 접점을 모색했다. 지금까지 다룬 기획만 150여개에 달할 정도로 매번 기획과 특집을 통해 불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안 제시 등을 고민했다.

지난 8월 30일 '탈종교화 시대, 불교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불교평론〉 창간 20주년 심포지엄이 열렸으며,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진단했다.

영화 〈나랏말싸미〉와 신미 대사 논쟁

지난 7월 23일 개봉한 영화 〈나랏말싸미〉가 때아닌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개신교계 일간지인 〈국민일보〉와 통신사 〈뉴시스〉를 비롯한 몇몇 언론들은 '세종은 신미 대사의 존재를 몰랐기에, 신미 대사가 한글 창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영화의 내용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국어학자와 불교계를 중심으로 '세종 단독 창제'라는 신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협력설'과 '범어기원설'이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또한 불교계 사찰과 단체를 중심으로 영화 〈나랏말싸미〉에 대한 단체관람도 이뤄졌다.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20년도 남경 의대(중의학)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9년 12월 27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